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9장 1-4, 19-23절

날짜: 5월 3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오늘 본문은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신분은 타국에 팔려온 비참한 노예였으나,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만족하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심지어 그 집 주인인 보디발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보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저 꿈쟁이가 왔다"며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르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난 이후에는 형제나 친척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가치 없게 여겨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교회마저도 거듭난 간증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 부르며 배척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열심을 내라, 헌금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질이 죄인인기에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안지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을 예수에게 전부 짊어지게 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는 곳이 아닙니다. 내놓을 게 있다면 전부 위선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해 놓으신 사실을 '받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평생 못 갚을 빚을 어떤 재벌이 대신 갚아주었다면,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며 담대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8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 팔려갔습니다. 세상에서는 18살을 성인이라 하며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성인이 되어 부모를 떠나는 삶은 곧 '감옥 생활'의 시작입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나를 묶어두고 짓누르는 감옥과 같습니다.

다. 먹고살기 위해, 자식들을 위해 평생 노예처럼 일하다가 결국 묘지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꿈을 가진 자, 곧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 오늘날 우리들의 꿈입니다. 비록 육신은 세상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의 주님으로 인해 찬송하는 사람이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느낌이 안 든다, 기분이 안 생기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은 가짜입니다.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다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해방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형편이나 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요셉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True Prosperity Through Christ



Passage: Genesis 39: 1-4, 19-23 (ESV)

Date: May 3, 2026

Pastor: Dong Suk Chung

Today's passage contains the story of Joseph, who was sold to merchants for 20 pieces of silver and taken to Egypt where he served as a slave in the house of Potiphar, an officer of Pharaoh. Eventually, he was thrown into prison because of a false accusation. Although Joseph's status was that of a miserable slave sold into a foreign land, the Bible leaves us with a remarkable record: the fact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became a prosperous man."

Prosperity does not simply mean that everything works out smoothly. It is the blessing of seeing God's hand in every relationship and endeavor, bringing them to a state of grace and completion. Even Potiphar, the master of the house, saw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God blessed the Egyptian's house for Joseph's sak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extended to everything he owned in his house and in his field.

Joseph's life is a foreshadowing of Jesus Christ, who was yet to come. His father Jacob sent his beloved son Joseph to ask after the welfare of his brothers who were tending sheep in the fields. Similarly,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Jesus into the world to see how humanity and the people of Israel were living.

However, when the brothers saw Joseph, they hated him and tried to kill him, saying, "Here comes that dreamer." Likewise, the Jews did not welcome Jesus when He came to His own land, but crucified and killed Him. The same is true for us today. Before receiving

salvation, we followed the customs of the world and lived seeking recognition and approval by the world. But after being born again through the cross of Jesus, we may find that our brothers or relatives may hate us, consider us worthless, and even send us to prison. Even corrupt churches may reject those who give testimonies of being born again, calling them "heretics".

Today many churches teach, "Be zealous, give a lot of offerings, live a virtuous life." But human beings are sinners by nature and cannot live righteously by their own efforts. Sin is something that cannot be overcome no matter how hard one tries not to commit it. That is why God sent His own Son in human form. He placed upon Jesus all the sin and death that you carry and resolved it completely.

Christianity is not a place where I offer something to God. If there is anything I can offer, it is nothing but hypocrisy. Christianity is about "receiving" and "believing" the fact that God has already accomplished everything through Jesus. If a wealthy man paid off a debt that you could never repay in your lifetime, then you are no longer a debtor and can live boldly. That is true with Christianity, you become bold the day you come to believe the fact that "God has declared me righteous and forgiven my sins," and true peace and joy enter your heart.

Joseph had a dream given by God when he was 17 years old. And when he became an adult at 18, he was taken and sold away from his parents. The world says that becoming 18 means becoming an adult and gaining freedom, but in the biblical sense, becoming an adult and leaving one's parents is the beginning of "prison life". Married life and work life are like

prisons that bind and weigh us down. The essence of life comes down to working like a slave all one's life to make a living and for one's children, and then finally being dragged to the graveyard.

But those who have the dream of heaven, that is, those who are born again, are different. Joseph's dream is our dream today. Even though our flesh may be trapped in the prison of this world and suffer hardship and persecution, the Spirit of God dwells within us. As those who possess citizenship in heaven, we enjoy the joy and peace given by the Lord. No matter how difficult the circumstances may be, the one who praises because of the Lord within them is the one who truly lives in joy.

Many people say, "I don't feel saved; since I do not have the feeling, I'm not sure if I'm saved." But your emotions and feelings are false and misleading. If Korea was liberated on August 15th, then whether you feel liberated or not, the liberation is an accomplished fact. Our salvation is the same. We must believe the fact that Jesus shed His blood on the cross 2,000 years ago and forgave our sins.

Do not trust in your circumstances or in yourself. Trust only in the Word of God.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When we believe this Word and confess it with our mouth, we are victors. Do not strive to accomplish it yourself. Let yourself die daily on the cross, and allow the Lord who dwells within you to work. The same God who was with Joseph knows all your circumstances today an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you. When "I" die, the Lord begins to work within me.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